

학령기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기 지각과 우울 간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Perceptions and School Children's Depression according to Gender*

공인숙(Kong, In Sook)¹⁾

민하영(Min, Ha-Yeoung)²⁾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perceptions and school children's depression according to their gender. The participants comprised 578 school age children in Daegu or Gyeongbuk Province. The participants completed measures of self-perception(SPPC) and depression(CDI). The SPPC consisted of 6 domains, self-perception(scholastic competence, social acceptance, athletic competence, physical appearance, behavioral conduct and global self-worth).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MANOVA, Repeated measures M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using SPSS PC(19.0 ver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Among the domain specific areas of self-perception, global self worth scored the highest amongst the other subscales(scholastic competence, social acceptance, athletic competence, behavioral conduct and global self-worth) in both boys and girls.
- (2) Level of depression in school children differed according to sex and domain specific self-perception which was social acceptance, physical appearance, behavioral conduct and global self worth.
- (3) Self-perception on depression was a more salient predictor in girls than boys. Among the domain specific area of self-perception, global self worth was the best predictor in both boys and girls.

* 이 논문은 2012년 한국아동학회 추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 이 논문은 2013년 순천대학교 학술기반 조성비로 연구되었음

¹⁾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²⁾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Min, Ha-Yeoung, Dept. of Child Studies, Catholic Univ. of DaeGu, 712-702, Rep. of Korea
E-Mail : hymin@cu.ac.kr

Key Words : 학령기 아동의 우울(school children's depression), 성별(boys and girls), 자기 지각(domain specific self-perception)

I. 문제제기

우울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부적응 중 하나다. ‘무겁게 내리 누르는’, 또는 ‘밑으로 가라앉음’을 뜻하는 라틴어 *deprivere*에서 나온 말처럼 우울(depression)은 침울함과 공허함, 슬픔과 근심 등 ‘가라앉은 감정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울은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 상실, 사회적 고립감, 고단함, 울음, 수면, 섭식 장애, 자살과 같은 자기 파괴적 충동 등의 증상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 짜증, 가족이나 친구와의 효율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문제행동, 학업성취저하 등으로 표현된다. 우울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울한 아동은 심리적, 사회적, 학업적 측면에서 상당한 부적응을 나타낼 수 있다(Wicks-Nelson & Israel, 2000). 우울은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부터 급증(Reinherz, Giaconia, Hauf, Wasserman & Paradis, 2000)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의 우울은 쉽게 간과되었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우울은 청소년이나 성인의 우울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아동 우울의 존재와 문제점이 보고(Craighead, Smucker, Craighead, & Ilardi, 1998)되기 시작했고, 청소년기 발현되는 우울의 조기 예방 및 중재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이나 성인의 우울 연구만큼 강조되기 시작했다.

학령기 아동의 우울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유발되지만 그 요인들 가운데 자기 지각(self-perception)은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자아 개념(self

concept)으로도 불려지는 자기 지각은 개인의 행동, 태도 및 경험에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Harter, 1990)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나 우울 등 부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Abela & Taylor, 2003; Cole, Martin, Peeke, Seroczynski, & Fier, 1999; Harter, 2006; Harter, Marold, & Whitesell, 1992; Kim & Cicchetti, 2006; Kwak & Kim, 1997; Overholser, Adams, Lehnert, & Brinkman, 1995)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국내 논문에서는 자기 역량으로 표현(Kong, 1989; Lee & Yoo, 1995)되기도 하는 자기 지각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 지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아 개념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 자기 지각은 Harter(1985)가 자아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제안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자아 개념은 James(1890)의 자아 이론을 바탕으로 발달(Song, 1999)했다. James(1890)는 자신이 지각하는 성취감과 유능감을 자아 개념의 주요 구성요소로 보았다. 자신이 중요시하는 특정 영역에서의 성취감과 유능감이 개인의 전반적 자기 개념 형성에 필수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Cooley(1902)는 사회적 지지나 긍정적 대우 등 타인의 인정이 자아 개념 형성에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Cooley(1902)는 ‘면경 자아(looking glass self)’와 관련지어 ‘의미있는 타인(significance others)’이 자신의 성취를 얼마나 인정하며 지지해 주는가가 자기 개념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Harter와 Connell(1984)은 James(1890)와 Cooley(1902)의 자아 개념에 관한 2가지 이론을 모두 통합한 다차원적 측면

의 자아 개념을 구성하였다. 즉 자아 개념이란 자기 자신의 성취감과 유능감(James, 1890)뿐만 아니라 의미있는 타인(significance others)으로부터의 인정(Cooley, 1902)으로부터 각각 형성되는 복합적 개념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 개념의 정의를 근거로 Harter(1985)는 자아 개념을 6가지 영역(학문적 능력, 사회적 수용, 운동적 능력, 신체적 외모, 행동적 품행, 전반적 자기 가치감)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기 지각 척도(Self-Perception Profile)를 개발하였다. Harter(1985)가 개발한 자기 지각은 자아존중감(self-esteem)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엄격히 구분하자면 자아존중감과 자기 지각은 구분된 개념이다(Hagborg, 1993; Harter, 1999; Marsh & Hattie, 1996). 자기 지각과 자아존중감은 자아 개념(self concept)이라는 공통성을 지닌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자아 개념을 단일적 측면에서 측정한 개념이고 자기 지각은 Harter(1985)가 자아 개념을 다원적 측면에서 측정한 개념이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행복한지 만족한지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의미하는데 반해, 자기 지각은 전반적 자아가치(self worth) 뿐 아니라 특정 영역 예를 들면 학업 분야(읽기, 쓰기, 셈하기 등)나 비학업 분야(사회성, 행동적, 신체적 측면) 등에서의 능력이나 적절성에 대한 개인적 지각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과 구분되는 자기 지각은 학업적 능력, 사회적 수용, 운동적 능력, 신체적 외모, 행동적 품행의 5개 영역 특정적 자기 가치(domain specific self worth)와 1개의 전반적 자기 가치(general self worth) 등 총 6개 하위 영역으로 자아 개념을 평가(Harter, 1985)한다는 점에서 자아존중감 이상으로 학문적 관심을 받는다. 단일 차원인 자아존중감과 달리 자기 지각은 자아 개념을 다원적 측면에서 접근하므로, 동일한 수준의

자아 개념이라도 다양한 측면에서 자아 특성을 분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 지각은 낮은 자아감과 우울 간에 유의한 관계가 보고(Abela & Taylor, 2003; Kim & Cicchetti, 2006)되고 있는 것처럼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지각의 하위 영역에 따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우울과 같은 내재화 행동문제 중 불안 장애를 보이는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자기 지각 중 사회적 수용을 낮게 지각(Chansky & Kendall, 1997)하거나 운동적 능력이나 신체적 능력을 더 낮게 지각 하는 것(Ekornås, Lundervold, Tjus, & Heimann, 2010)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기 지각과 불안에 관한 것이지만 우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의 우울은 자기 지각 영역 중 남아는 행동적 품행에 의해 여아는 학업적 능력과 신체적 외모에 의해 더 많이 영향받는 것(AlGhamdi, Manassis, & Wilansky-Traynor, 2011)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령기 아동의 우울을 예측하는데 있어 성별 또한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남녀나 성인 남녀의 경우 여아의 우울이 남자의 우울보다 일관되게 높게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의 경우 여아의 우울이 남아보다 높다거나(Hankin, Mermelstein, & Roesch, 2007) 우울에 성차가 없다거나(AlGhamdi *et al.*, 2011; Cho & Lee, 1990; Shin, Chung, & Kim, 2012) 오히려 여아의 우울이 남아보다 약간 낮다는 연구(Twenge & Nolen-Hoeksema, 2002) 등 우울의 성차는 일관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우울을 예측하는데 있어 성별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은 신중한 주

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령기 아동의 우울 예측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는 것은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기 지각에서 성차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Demarest & Allen, 2000; Kearny-Cooke, 1999). 예를 들어 여아는 남아에 비해 운동적 능력이나 신체적 외모를 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rain & Bracken, 1996; Crocker, Eklund, & Kowalski, 2000; Kearny-Cooke, 1999; Kim & Jung, 2007; Lee & Yoo, 1995; Song, Namkung, & Kim, 2012).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되는 자기 지각에서 성차가 나타나는 것은 학령기 아동의 우울이 성별에 의한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해도,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자기 지각의 영향에 의해 우울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학령기 아동의 우울이 자기 지각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음을 함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함의는 우울한 여아가 우울한 남아에 비해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더 높고 더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거나(Wood, Becker, & Thompson, 1996), 부정적 자기 신체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연구(Rierdan & Koff, 1997) 등에 의해 보다 구체화될 수 있다. 최근 AlGhamdi *et al.*(2011)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아동 140명을 대상으로 자기 지각이 우울 증상과 관련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남아의 우울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남아와 여아간 차이를 보였다. 남아는 행동적 품행이 가장 설명력 높은 예측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여아는 학업적 능력과 신체적 외모가 설명력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대한 자기 지각의 영향이 남녀에 따라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AlGhamdi 등(2011)의 연구 외에 자기 지각과 우울 간 관계를 남녀 성

별로 접근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별로 학령기 아동의 우울과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 간 관계가 성별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의 주효과, 성별의 주효과 및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과 성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의 우울과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 간 관계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는 것은 학령기 남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의 영향을 전체적 또는 통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자기 지각과 성별과의 관계를 자기 지각의 6개 하위 영역 별로 각각 나누어 개별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우울에 미치는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의 상대적 영향을 남녀 아동별로 살펴본 최근의 캐나다 연구(AlGhamdi *et al.*, 2011)에서처럼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의 영향력 및 상대적 영향력을 남녀 아동별로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학령기 남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의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남녀 아동의 자기 지각과 우울 간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반복측정 중다변량분석을 통해 자아 지각 6개 하위 영역이 남녀 아동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자아 지각 6개 하위 영역의 집단 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령기 아동은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고 또래 관계가 강조되기 시작할 뿐 아니라, 학업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기다. 뿐

만 아니라 얼짱, 몸짱 등 신체적 외모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기다. 이러한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학령기 남녀 아동의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의 집단 간 및 집단 내 평균 차이는 건강한 자기 지각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신중하고 주의깊게 관찰할 특정 영역의 자기 지각에 관한 정보를 남녀 아동별로 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학령기 남녀 아동의 자아 개념 특성을 이해하는 자료가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울 특성을 이해하는 기초 정보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학령기 남녀 아동의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1-1) 학령기 아동의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의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한가?
- 1-2) 학령기 남아의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의 집단 내 차이는 유의한가?
- 1-3) 학령기 여아의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의 집단 내 차이는 유의한가?

<연구문제 2>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대한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의 영향은 성별에 따라 조절되는가?

- 2-1) 학령기 아동의 우울은 성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가?
- 2-2) 학령기 아동의 우울은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가?
- 2-3) 학령기 아동의 우울은 성별과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의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가?

연구문제 3) 학령기 남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의 영향력 및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3-1) 학령기 남아의 우울에 미치는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의 영향력 및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3-2) 학령기 여아의 우울에 미치는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의 영향력 및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의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자녀를 둔 부모나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아동복지나 상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학령기 아동의 자기 지각을 영역 특장적 시각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자기 지각적 측면에서 학령기 아동의 우울을 남녀 아동에 따라 독립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데 참고할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대구지역 4개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 중인 578명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5, 6학년을 연구대상으로 한 것은 우울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의 우울을 예방하거나 조기 중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진입기에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의 우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우울

의 설명변인으로 고려한 자기 지각의 경우, 8세 이후가 되어야 6개 하위 영역에 대한 자기 지각이 분화되고 발달하기 시작(Harter, 1982)하기 때문에 자기 지각의 하위 영역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수합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5, 6학년이 보다 안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 학령기 아동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학년 249명(43.1%), 6학년 329명(56.9%)이었으며 남자는 290명(50.2%), 여자는 288명(49.8%)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아버지는 40대가 391명(67.6%)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는 30대가 322명(55.7%)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학력을 살펴보면 아버지(304명 52.6%)와 어머니(325명, 56.2%) 모두 고졸 이하가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가족 수입의 경우 월소득 300만원 이하의 가정이 314명으로 54.3%를 차지했다.

2. 연구도구

1) 자기 지각

학령기 아동의 자기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Harter(1985)의 아동용 자기 지각 척도(Self 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 SPPC)를 Kim(200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학업적 능력, 사회적 수용, 운동적 능력, 신체적 외모, 행동적 품행과 전반적 자기가치의 6개 하위 영역 각 6문항씩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척도는 ‘나는 또래의 다른 학생들만큼 영리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하지 못한다.’ 등의 학업수행과 관련된 질문,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귄다.’, ‘나는 친구들이 나를 좋아해 준다고 생각한다.’ 등의 친구들로부터 받고 있는 인정과 관련된 질문, ‘나는 어떤 운동이든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새로운 놀이들을 잘 못한다.’ 등의 놀이나 운동과 관련된 질문, ‘나는 외모에 만족하지 못한다.’, ‘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chool children (N = 578)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Grade	5th	249(43.1)	Mother job	Non worker	218(37.1)
	6th	329(56.9)		Worker	352(59.9)
Gender	Boys	290(50.2)		Missing	18(3.1)
	Girls	288(49.8)	Income (Million won)	300 ≤	315(54.5)
Mother age	30s	322(55.7)		300 >	263(45.5)
	40s	231(40.0)	Father age	30s	152(26.3)
	50s	13(2.2)		40s	391(67.6)
	Missing	12(2.1)		50s	28(4.8)
Mother education	High school	325(56.2)		Missing	7(1.2)
	2 year college	44(7.6)	Father education	High school	304(52.6)
	University	184(31.8)		2 year college	55(9.5)
	Missing	25(4.3)		University	198(34.3)
		Missing		21(3.6)	

는 내 얼굴이나 머리모양을 좋아한다.’ 등의 자신의 신체적 외모와 관련된 질문, ‘나는 말썽을 많이 일으킨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한다’ 등과 같이 행동적 품행과 관련된 질문 ‘나는 행복하다고 느낀다.’, ‘나는 현재의 나 자신에 대해 만족스럽다.’ 등의 자기 자신을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가치있다고 느끼는지와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두 문장으로 이루어진 한 문항에서 자신과 비슷한 문장을 결정한 후 나와 어느 정도 비슷하다면 ‘약간 그렇다’란에, 나와 정말 비슷하다면 ‘정말 똑같다’란에 응답하는 형태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가능 범위는 각 6점에서 2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학업적 능력, 사회적 수용, 운동적 능력, 신체적 외모, 행동적 품행과 전반적 자기가치 순으로 각각 .81, .76, .80, .73, .71, .71로 나타났다.

2) 우울

학령기 아동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Kovacs (1992)의 아동용 우울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 CDI)를 Cho & Lee(1990)가 번역,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CDI는 Beck의 우울 척도 (Beck Depression Inventory : BDI)를 연령에 맞게 변형시킨 것으로 아동 스스로 자신의 우울 정도를 보고하는 자가 우울 평정 척도다. 자기비하, 신체증상, 우울정서, 흥미상실, 행동문제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각 문항은 우울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세 문장으로 구분하였다. 아동은 ‘나는 가끔 슬프다(0점)’, ‘나는 자주 슬프다(1점)’, ‘나는 항상 슬프다(2점)’로 구분된 문항 중에서 지난 2주 동안 자신을 가장 잘 기술해 주는

문항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척도는 3점 리커트로 측정되었으며, 문항 간 내적 합치도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이었으며 0점에서 54점의 점수 범위를 갖는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대구지역 내 4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초등학교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5, 6학년 아동의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 요령을 설명한 후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질문지는 4주 후에 재방문하여 수거하였다. 질문지 중 답변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한 578부만을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프로그램의 다변량분석, 반복적 측정 다변량분석, 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미만에서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학령기 남녀 아동의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 차이

학령기 남녀 아동의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의 차이를 다변량분석을 통해 성별 집단 간 그리고 반복적 다변량 분석을 통해 남아와 여아의 집단 내 차이로 살펴보았다. 우선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령기 남아와 여아 간 자기 지

<Table 2> MANOVA results for self-perception in boys and girls

Wilks' Lamda	F-value(df)
.92	7.78***(6, 571)

*** $p < .001$.

각 6개 하위 영역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Wilks's Lamda = .92, $F_{(6, 571)} = 7.78$, $p < .001$). 학령기 남녀 아동은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 중

학업적 능력, 운동적 능력, 신체적 외모, 행동적 품행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여아는 남아에 비해 학업적 능력, 운동적 능력, 신체적 외모에서 낮은 자기 지각을 나타냈다. 반면 행동적 품행에서는 남아에 비해 높은 자기 지각을 나타냈다. 한편 남녀 아동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영역 중 남녀 아동 간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낸 영역은 Tabl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신체적 외모 영역($\text{Eta}^2 = .024$)으로 나타났다.

<Table 3> Mean differences of self-perception between boys and girls

Variables	Boys(n=290) M(SD)	Girls(n=288) M(SD)	F-value	Eta ²
Scholastic competence	16.54(3.52)	15.92(3.72)	4.21*	.007
Social acceptance	17.13(3.40)	17.03(3.89)	.12	.000
Athletic competence	17.27(3.72)	16.22(4.17)	10.21**	.017
Physical appearance	16.33(3.52)	15.18(3.80)	14.08***	.024
Behavioral conduct	16.41(2.82)	16.95(3.16)	4.65*	.008
Global self-worth	18.28(2.95)	17.77(3.50)	3.62	.006

* $p < .05$. ** $p < .01$. *** $p < .001$.

<Table 4> RMANOVA results for self-perception in boys and girls

Gender	Variables	M(SD)	Wilks' Lamda	df	F-value
Boys (N = 290)	Scholastic competence	16.54(.21) a	.60	285	38.76***
	Social acceptance	17.13(.20) b			
	Athletic competence	17.27(.22) b			
	Physical appearance	16.33(.21) a			
	Behavioral conduct	16.41(.17) a			
	Global self-worth	18.28(.17) c			
Girls (N = 288)	Scholastic competence	15.92(.22) a	.56	283	45.37***
	Social acceptance	17.03(.23) b			
	Athletic competence	16.22(.25) a			
	Physical appearance	15.18(.22) c			
	Behavioral conduct	16.95(.19) b			
	Global self-worth	17.77(.21) d			

Note. a b c d is results of variables comparison. Different letter means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 $p < .001$.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에서 남녀 간 차이를 다변량분석을 통해 Table 2와 Table 3에서 확인한 것을 토대로, 남아와 여아 각각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 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반복적 다변량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아와 여아 각

각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oys : Wilks's Lamda = .60, $F_{(5, 285)} = 38.76, p < .001$, Girls : Wilks's Lamda=.56, $F_{(5, 283)} = 43.37, p < .001$). 남아의 경우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 중 학업적 능력 (M(SD) = 15.80(3.70), 신체적 외모, 행동적 품행

<Table 5> Multiple regression for depression by sex and self-perception

Self-perception	Variables	Depression				R ²	F-value(df)
		B	β	Tolerance	VIF		
Scholastic competence	Constant	28.20(1.22)				.27	71.88*** (3, 574)
	Sex(A)	.14(.51)	.01	.99	1.01		
	SC(B)	-1.01(.07)	-.52***	.99	1.01		
	(A)×(B)	-.23(.14)	-.06	1.00	1.00		
Social acceptance	Constant	30.26(1.20)				.34	31.90*** (3, 574)
	Sex(A)	.65(.49)	.05	1	1.00		
	SAC(B)	-1.10(.07)	-.56***	.98	1.02		
	(A)×(B)	-.31(.14)	-.08*	.98	1.02		
Athletic competence	Constant	21.99(1.29)				.13	28.24*** (3, 574)
	Sex(A)	.12(.56)	.01	.98	1.02		
	AC(B)	-.62(.07)	-.34***	.97	1.03		
	(A)×(B)	-.26(.14)	-.07	.99	1.01		
Physical appearance	Constant	25.73(1.24)				.22	55.66*** (3, 574)
	Sex(A)	-.25(.53)	-.02	.98	1.03		
	PA(B)	-.89(.07)	-.46***	.97	1.03		
	(A)×(B)	-.41(.14)	-.11**	.99	1.01		
Behavioral conduct	Constant	31.06(1.46)				.27	69.85*** (3, 574)
	Sex(A)	1.41(.51)	.10**	.99	1.01		
	BC(B)	-1.19(.09)	-.50***	.98	1.02		
	(A)×(B)	-.39(.17)	-.07*	.99	1.01		
Global self-worth	Constant	35.77(1.39)				.38	118.75*** (3, 574)
	Sex(A)	.08(.47)	.01	.99	1.01		
	GSW(B)	-1.33(.07)	-.60***	.97	1.03		
	(A)×(B)	-.29(.15)	-.07*	.97	1.03		

* $p < .05$. ** $p < .01$. *** $p < .001$.

Note. SC : scholastic competence, SAC : social acceptance, AC : athletic competence, PA : physical appearance, BC : behavioral conduct, GSW : global self-worth

은 사회적 수용이나 운동적 능력, 전반적 자기가치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 중 학업적 능력과 운동적 능력을 사회적 수용이나 행동적 품행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지각하고 있으나 신체적 외모보다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아의 전반적 자기가치는 남아의 전반적 자기가치와 마찬가지로 5개 하위 영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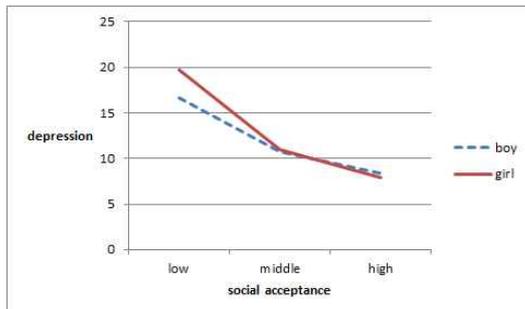
2. 학령기 남녀 아동에 따른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과 우울 간 관계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의 영향이 남녀 아동에 따라 유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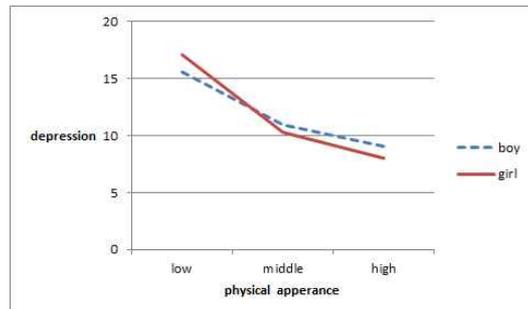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령기 아동의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성별(A)과 6개 하위 영역 자기 지각(B), 그리고 성별과 6개 하위 영역 자기 지각의 상호작용 변인(A×B)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각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명목 변수인 성별을 남아 0, 여아 1로 더미 변수 처리하였다. 그리고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별 성별과의 상호작용 변인을 만들었다. 상호작용 변인은 성별과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 각각에서 평균값을 뺀 센터링 값(박광배, 2003)을 서로 곱한 값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성별, 자기 지각 그리고 성별과 자기 지각의 상호작용 변인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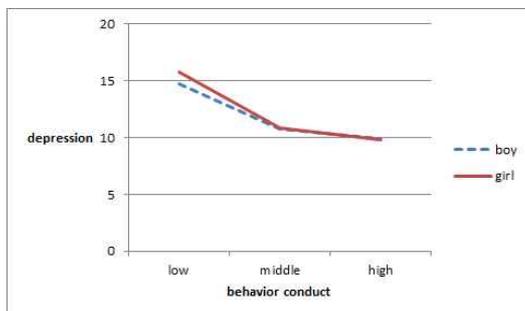
Table 5에서 나타나듯 공차한계값인 Tole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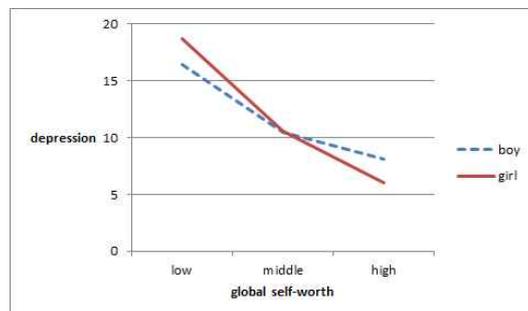
<Figure 1> Depression by gender and social acceptance



<Figure 2> Depression by gender and physical appearance



<Figure 3> Depression by gender and behavior conduct



<Figure 4> Depression by gender and global self-worth

는 1에 가까운 값을, 분산팽창계수인 VIF 값은 10이하를 나타냈다. 공차한계값이 1에 가깝거나 분산팽창계수 VIF가 10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양병화, 2002)을 고려해 볼 때, 독립변인들 사이에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기초로 학령기 아동의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 별 각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에 보여지는 것처럼, 학령기 아동의 우울은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에 의해 각각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령기 남녀 아동 모두 학업적 능력에 대한 지각이, 사회적 수용에 대한 지각이, 운동적 능력에 대한 지각이 신체적 외모에 대한 지각이 그리고 전반적 자기 가치에 대한 지각이 낮을수록 우울 경험은 보다 빈번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사회적 수용, 신체적 외모, 행동적 품행과 전반적 자기가치의 경우 낮은 자기 지각 시 여아는 남아에 비해 우울을 좀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사회적 수용, 신체적 외모, 행동적 품행과 전반적 자기가치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조절됨, 즉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남을 시사하는 것이다.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수용, 신체적 외모, 행동적 품행과 전반적 자기가치와 우울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 즉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대한 성별과 자기 지각 간 상호작용 효과는 Figure 1, 2, 3, 4를 통해 보다 쉽게 확인될 수 있다.

3. 학령기 남녀 아동의 우울에 대한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의 영향력 및 상대적 영향력

학령기 남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의 영향력 및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남녀 아동별로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을 독립변인으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회귀분석 전에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을 공차한계값인 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인 VIF를 통해 알아보았다. Table 6에서 나타나듯 남아와 여아 모두 공차한계값인 Tolerance는 대부분 1에 가까운 값을, 분산팽창계수인 VIF 값은 10이하를 나타냈기 때문에 독립변인들 사이에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학령기 남아와 여아 별로 각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학령기 남아와 여아 모두 우울은 학업적 능력, 사회적 수용과 전반적 자기가치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아는 여아와 달리 행동적 품행($\beta = -.15, p < .01$)이 우울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남아의 경우 학업적 능력, 사회적 수용, 행동적 품행과 전반적 자기가치 등 자기 지각 4개 하위 영역에 의해 설명되는 우울의 변량은 41%($R^2 = .41$)를 나타냈다. 반면 학령기 여아의 경우 학업적 능력, 사회적 수용과 전반적 자기가치 등 자기 지각 3개 하위 영역에 의해 설명되는 우울의 변량은 58%($R^2 = .58$)를 나타냈다. 이는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대한 자기 지각의 예측력이 남아보다 여아에게 좀 더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학령기 아동의 우울은 남녀 모두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 중 전반적 자기가치(Boys : $\beta = -.26, p < .001$), Girls : $\beta = -.31, p < .001$)에 의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수용, 학업적 능력 순으로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남아의 경우 사회적 수용($\beta = -.25, p < .001$)과 학업적 능력($\beta = -.20, p <$

<Table 6> Self-perception predictors of depression in boys and girls (multiple regression)

Sex	Variables	Depression				R ²	F(df)
		B	β	Tolerance	VIF		
Boys (N = 290)	Constant	41.75(2.33)				.41	33.04 (6, 283)
	Scholastic competence	-.38(.11)	-.20***	.66	1.52		
	Social acceptance	-.49(.12)	-.25***	.60	1.66		
	Athletic competence	.16(.10)	.09	.67	1.48		
	Physical appearance	-.10(.11)	-.05	.65	1.54		
	Behavioral conduct	-.36(.13)	-.15**	.70	1.44		
	Global self-worth	-.59(.14)	-.26***	.54	1.86		
Girls (N = 288)	Constant	45.76(1.82)				.58	64.96 (3, 281)
	Scholastic competence	-.28(.11)	-.14*	.54	1.86		
	Social acceptance	-.53(.10)	-.27***	.53	1.90		
	Athletic competence	-.13(.07)	-.07	.78	1.29		
	Physical appearance	-.11(.11)	-.06	.54	1.85		
	Behavioral conduct	-.26(.13)	-.11	.48	2.08		
	Global self-worth	-.68(.13)	-.31***	.43	2.31		

* $p < .05$, ** $p < .01$, *** $p < .001$

.001) 간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Delta = .05$)가 여아의 사회적 수용($\beta = -.27, p < .001$)과 학업적 능력($\beta = -.14, p < .001$)간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Delta = .13$)보다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학업적 능력에 대한 자기 지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여아보다 남아에게 큼을 의미하는 것이다.

IV. 논의 및 결론

대구지역소재 초등학교 5, 6학년 578명을 대상으로 학령기 아동의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학업적 능력, 사회적 수용, 운동적 능력, 신체적 외모, 행동적 품행, 전반적 자기가치)과 우울 간 관계를 남녀 성별에 따라 살펴 본 이 연구는 3개의 연구문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령기 아동의 자기 지각은 남녀 아동 모두 각각 학업적 능력, 사회적 수용, 운동적 능력, 신체적 외모, 행동적 품행, 전반적 자기가치 간 차이를 보였다. Table 3에서 확인했듯 5, 6학년 학령기 남아는 학업적 능력, 신체적 외모, 행동적 품행 → 사회적 수용, 운동적 능력 → 전반적 자기가치 순으로, 여아는 신체적 능력 → 학업적 능력, 운동적 능력 → 사회적 수용, 행동적 품행 → 전반적 자기가치 순으로 긍정적 자기 지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남녀 아동 모두 학업적 능력에 대해서는 다른 자기 지각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자기 지각을 보였다. 이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학업 부담이 늘어나면서 학업 수행에 대한 능력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한편 여아는 남아와 같이 학업에 대한 능력을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하지만 학업적 능력보

다 신체적 외모에 대한 자기 지각을 더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하여 갖는 태도와 느낌인 신체상에서 초기 청소년의 경우 여아는 남아에 비해 신체상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Jung, 2010; Polce-Lynch, Myers, Kilmartin, Forssmann-Flack, & Kliwer, 1998; Rosenblum & Lewis, 1999)이 있으며, 대중매체의 외모지상주의, 몸짱 등 신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가운데 여아는 남아에 비해 자신의 신체상에 대해 더 높은 불만족을 나타내기(Cho, 2009) 때문으로 보여진다. 신체적 외모에 대한 낮은 자기 지각은 왜곡된 신체적 외모상을 더욱 강화시키는 위험적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자기 지각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체적 외모에 관한 건강한 자기상 정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여아에게 보다 많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학령기 아동의 우울은 자기 지각에 의해 유의하게 영향받으나 이러한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사회적 수용, 신체적 외모, 행동적 품행과 전반적 자기가치에 대한 지각은 성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와 여아 모두 사회적 수용, 신체적 외모, 행동적 품행과 전반적 자기가치에 대한 자기 지각이 낮아질 때, 우울 경험은 높아진다. 그러나 학령기 여아의 우울 경험 상승 폭은 남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긍정적이지 못한 자기 지각으로 인해 보다 더 강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아가 남아에 비해 사회적 수용의 자기 지각이 우울에 더 영향을 미친 것은 남아에 비해 여아가 대인간 관계에 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나

타난 결과라 보여진다.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또래관계에서 친밀성과 관계, 수용에 대한 관심이 큰 것(Ladd, 1990)처럼 학령기 여아도 남아에 비해 또래간 친밀한 상호작용을 선호(Bukowski, Hoza, & Boivin, 1994; Shin, 2007)하는 등 사회적 수용이나 관계에 민감하다. 그러므로 사회적 관계에 자신이 충분히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상대적으로 더 큰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기 쉽다. 따라서 학령기 여아는 남아에 비해 사회적 수용에 대한 지각이 낮을 때 보다 높은 우울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신체적 외모에 대한 자기 인식 역시 여아가 남아에 비해 우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매체가 제시하는 외모 또는 신체에 대한 이상적 기준에 대한 동조 현상이 여아에게 보다 높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외모나 신체에 대한 이상적 기준에 대한 동조가 남아보다 크기 때문에 신체적 외모에 대한 긍정적이지 못한 자기 인식은 자기 비하와 함께 우울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행동적 품행에 대한 자기 지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여아는 남아보다 좀 더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여아에 비해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거나 부모나 교사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많이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지적(Lang & Oh, 2011)받는다. 이에 반해 여아는 남아에 비해 행동적 품행에 있어 부모나 교사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남녀 집단의 특성 때문에 남아가 또래 남아들에 비해 행동적 품행이 낮다고 평가될 때보다 여아가 또래 여아들에 비해 행동적 품행이 낮다고 평가될 때 더 우울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동일한 수준의 낮은 행동적 품행이라도 행동적 품

행이 전체적으로 낮다고 평가되는 집단보다 행동적 품행이 전체적으로 높다고 평가되는 집단에서 더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의 영향력은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한 AlGhamdi *et al.*, 연구(2011)에 서처럼 여아가 남아에 비해 높았다. 이는 학령기 아동의 우울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시, 자기 지각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남아보다 여아에게 보다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학령기 아동의 우울은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 중 전반적 자기가치에 의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아동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특정 영역의 자기 지각에 대해 긍정성을 강화시키는 것 이상으로 전반적 자기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학령기 남녀 아동 모두는 사회적 수용과 학업적 능력 순으로 우울에 대한 상대적 설명력을 더 많이 나타냈다. 이는 학업적 측면보다 사회적 측면이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좀 더 영향력있는 요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증가되기 시작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 아동의 우울은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더 영향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수용의 질을 결정하는 또래 관계가 학령기 아동의 우울 예방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학령기 남아의 경우 여아와 달리 우울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행동적 품행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3-6학년 캐나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행동적 품행이 여아가 아닌 남아의 우울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AlGhamdi *et al.*, 2011).

행동적 품행의 경우 남자는 여아에 비해 어린 시절부터 부모나 교사로부터 낮게 평가된다. 이러한 평가는 누적화되면서 남아 스스로 자신이 잘 행동하지 못한다는 생각과 문제나 말썽을 일으킨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갖게 만든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회의나 불만은 자기 비하적 태도의 우울을 유발시키기 쉽다. 따라서 남아의 행동적 품행에 대한 자기 지각은 여아와 달리 우울을 설명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 지각의 세부 내용을 6개 하위 영역별로 남녀 아동에 따라 각각 살펴봄으로써 학령기 남녀 아동의 자기 지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공했다. 한편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자기 지각의 영향력을 남녀 아동에 따라 자기 지각의 6개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뿐 아니라, 남녀 아동 각각을 대상으로 우울에 미치는 자기 지각 6개 하위 영역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영향력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자기 지각의 중요성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우울 예방에 있어 보다 주의 지도해야 할 자기 지각의 특정 영역이 남녀 아동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학령기 남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자기 지각 차이에 관한 이 연구의 결과는 임상 진료 현장이나 교육 현장 뿐 아니라 부모교육 현장에서 남녀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자아 증진 프로그램이나 우울 완화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거나 고려하도록 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대구경북지역 내 학령기 아동만을 자료 조사한 것이므로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내용을 기반으로 학령기 아동의 우울 예방을 위한 자기 지각 중재 프로그램을

남녀 아동에 따라 개발하고 이의 효과를 검증하는 노력이 시도되었으면 한다.

References

- Abela, J. R. Z., & Taylor, G. (2003). Specific vulnerability to depressive mood reactions in schoolchildren : The moderating role of self-esteem.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2*, 408-418.
- AlGhamdi, S., Manassis, K., & Wilansky-Traynor, P. (2011). Self-perceptions in relation to self-reported depressive symptoms in boys and girls. *Journal of the Canadian Academy of Child Adolescent Psychiatry, 20*(3), 203-207.
- Park, K. (2003). *ANOVA and Regression*. Seoul : Hakjisa.
- Bukowski, W. B., Hoza, B., & Boivin, M. (1994).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during pre- and early adolescence : Th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friendship qualities scal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 11*, 471-484.
- Chansky, T. E., & Kendall, P. C. (1997). Social expectancies and self-perceptions in anxiety-disordered childre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1*, 347-363.
- Cho, S. C., & Lee, Y. S. (1990). Development of the Korean form of the Kovac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9*(4), 943-955.
- Cho, Y. J. (2009). The effects of appearance stress on children and adolescents' self-esteem : Mediating variables of sex-role identity and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8), 87-99.
- Cole, D. A., Jacquez, F., & Maschman, T. L. (2001). Social origins of depressive cognitions : A longitudinal study of self-perceived competence in childre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 377-395.
- Cole, D. A., Martin, J. M., Peeke, K. A., Seroczynski, A. D., & Fier, J. (1999). Children's over- and underestimation of academic competence : A longitudinal study of gender differences, depression, and anxiety. *Child Development, 17*, 459-473.
- Cooley, C. H. (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 Scribner's Sons
- Craighead, W. E., Smucker, M. R., Craighead, L. W., & Ilardi, S. S. (1998). Factor analysis of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in a community sample. *Psychological Assessment, 10*, 156-165.
- Crain, R. M., & Bracken B. A. (1996) Age, race and gender differences in self-concept. In Bracken, B. A. (Ed.) *Handbook of self concept*(pp. 395-420). New York : Wiley
- Crocker, P. R. E., Eklund, R. C., & Kowalski, K. C. (2000). Children's physical activity and physical self-perceptions. *Journal of Sports Sciences, 18*, 383-394.
- Demarest, J., & Allen, R. (2000). Body image : Gender, ethnic, and age differenc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0*, 465-472.
- DuBois, D. L., Tevendale, H. D., Burke-Braxton, C., Swenson, L. P., & Hardesty, J. L. (2000). Commentary on the special issue : The maturing of self-esteem research with early

- adolescent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 231-240.
- Ekorna's, B., Lundervold, A. J., Tjus, T., & Heimann, M. (2010). Anxiety disorders in 8-11-year-old children : Motor skill performance and self-perception of competence.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1, 271-277.
- Ha, Y. E. (2003). The effect of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4(4), 29-40.
- Hagborg, W. (1993).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and Harter's self-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 : A concurrent validity study. *Psychology School*, 30, 132-136.
- Hankin, B. L., Mermelstein, R., & Roesch, L. (2007). Sex differences in adolescent depression : stress exposure and reactivity models. *Child Development*, 78(1), 279-295.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er, S. (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Denver, CO : University of Denver.
- Harter, S. (1990). Issues in the assessment of the self-concep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 M. La Greca(Ed.), *Through the eyes of the child : Obtaining self-reports from children and adolescents*(pp. 292-325). Boston, MA : Allyn and Bacon.
- Harter, S. (1999).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ew York : Guilford.
- Harter, S. (2006). *The self :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 and personality development*(pp. 505-570). NJ : Wiley.
- Harter, S., & Connell, J. P. (1984). A model of children's achievement and related self-perceptions of competence, control, and motivational orientation. In J. Nicholls(Ed.), *Advances in motivation and achievement*(pp. 219-250). Greenwich, Ct : JAI Press.
- Harter, S., Marold, C., & Whitesell, N. (1992). Model of psychosocial risk factors leading to suicidal ideation in you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167-188.
- James, W. (189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Vol. 2). New York : Dover Publications.
- Jung, J. E., & Kim, J. M. (2010). The effects of narcissism, perfectionism and family resilience on adolescents' body image. *The Journal of Play Therapy*, 14(3), 1-17.
- Jung, Y. J. (2010). Relationships between body image attitude and its correlates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8(5), 103-117.
- Kang, J. H., & Oh, K. J. (2011).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preschoolers' age, temperament and parenting for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6(1), 1-21.
- Kearney-Cooke, A. (1999). Gender differences and self-esteem. *The Journal of Gender-Specific Medicine*, 2, 46-52.
- Keum, K. J., & Kim, G. Y. (1997). Self-concept development(2) : The relationships between general self-worth, depression, and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Developmental*,

- 10(1), 15-26.
- Kim, J., & Cicchetti, D. (2004). A longitudinal study of child maltreatment, mother-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maladjustment : The role of self- esteem and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2*(4), 341-354.
- Kim, J. H., & Jung, I. K. (2007). A study on body image perception and eating disorders by gender in junior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5*(1), 101-109.
- Kim, S. H. (2001).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other differences of perceived competence rating and socioemotional adjust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5*(3), 29-57.
- Kong, I. S. (1989). Children's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their perception of parental warmth and control.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0*(1), 64-78.
- Kovacs, M. (1992).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CDI) manual*. North Tanawanda, New York : Multi-Health Systems.
- Ladd, G. (1990). Having friends, keeping friends, making friends, and being liked by peers in the classroom : Predictors of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1*(4), 1081-1100.
- Lee, J. L., & Yoo, A. J. (1995). A study on children's home environment and peer group environment and their self-perceived competenc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3*(3), 127-147.
- Lee, Y. M. (2004). The effect of children's body shape perception and body image perception on their diet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4), 143-153.
- Marsh, H. W. (1998). Age and gender effects in physical self-concepts for adolescent elite.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10*, 23-29.
- Marsh, H. W., & Hattie, J. (1996). Theoretical perspectives on the structure of self-concept. In B. A. Bracken(Ed.), *Handbook of self-concept*(pp. 38-90). New York : Wiley.
- Overholser, J. C., Adams, D. M., Lehnert, K. L., & Brinkman, D. C. (1995). Self-esteem deficits and suicidal tendencie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3*(7), 919-929.
- Polce-Lynch, M., Myers, B. J., Kilmartin, C. T., Forssmann-Falck, R., & Kliewer, W. (1998). Gender and age patterns in emotional expression, body image, and self-esteem : A qualitative analysis. *Sex Roles, 38*, 1025-1048.
- Reinherz H. Z., Giaconia, R. M., Hauf, A. M., Wasserman, M. S., & Paradis, A. D. (2000). General and specific childhood risk factors for depression and drug disorders by early adult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2), 223-31.
- Rierdan, J., & Koff, E. (1997). Weight-related aspects of body image, and depression in early adolescent girls. *Adolescence, 36*, 615-624.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lum, G., & Lewis M. (1999). The relations among body image, physical attractiveness and

- body ma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0(1), 50-64.
- Shin, M. J., Chung, K. M., & Kim, E. S. (2012).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Korean adolescents : Onset and developmental change.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 Clinical*, 31(1), 93-114.
- Shin, Y. L. (2007). Social withdrawal and friendships in childhood.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8(5), 193-207.
- Song, I. S. (1999). The theory, measurement, and enhancement of self concep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3(4), 1-46.
- Song, S. J., Namkung, J. Y., & Kim, J. M. (2012). The development of self-concept in adolescence according to gender.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9(1), 215-238.
- Twenge, J. M., & Nolen-Hoeksema, S. (2002) Age, gender, race, socioeconomic status, and birth cohort differences on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 A meta-analy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1, 578-588
- Wicks-Nelson, R., & Israel, A. (2000). *Behaviors of childhood*(4th ed.). Prentice Hall,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 Wood, K. C., Becker, J. A., & Thompson, J. K. (1996). Body image dissatisfaction in pre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7, 85-100.
- Yang, B. (2002). *Understanding and practices of multivariate data analysis*. Seoul : Hakjisa.
- Yoo, A. J., Lee, J. S., & Kim, J. M. (2005). The impacts of body-image, attachment to parent and peers, and resilience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5), 123-132.

2012년 12월 31일 투고, 2013년 3월 31일 수정
2013년 4월 16일 채택